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박은식과 신채호를 중심으로

장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료, 한국근대사 전공
yuwadal@gmail.com

I. 머리말

II. 박은식 역사학의 유통

III. 신채호 역사학의 유통

IV. 맺음말

I. 머리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해방 이후 한국의 사학사는 대개 민족주의사학, 마르크스주의사학(사회경제사학), 신민족주의사학, 문헌고증사학 등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의 역사는 한국사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했는가를 토대로 그 사학사적 의의와 한계가 평가되어왔다. 한국 근대사학사의 경우 일본의 식민주의 사학과 대립하면서 민족적 과제를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근대사학사는 크게 '식민사학과 반식민사학'으로 구분된다.¹⁾ 문헌고증사학을 '반식민사학'의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²⁾ 대개는 식민사학의 아류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사학사 연구는 연구 대상 시기의 학문적·사상적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당대 현실에 항상 조용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사학사 속에서 팽팽한 대립관계 또는 논리적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대중의 역사인식과 역사상의 형성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민주의사학은 학문 생산의 위치뿐 아니라 총독부와 제도교육을 통해 대중에게 압도적 영향력을 지녔다. 이에 비해 '반식민사학'은 논쟁(또는 투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지만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를 확정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민족주의사학자인 신채호와 박은식은 1910년대부터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반면에 보통 '문화사학자'로 불리면서 조선에서 저술활동을 벌인 역사학자로는 안확, 황의돈, 장도빈, 권덕규, 최남선, 이능화 등이 있다.³⁾ 전자와 후자 중 사학사적 평가, 곧 현재

1)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역사학회, 1966); 姜萬吉, 「日帝時代의 反植民史學論」, 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學史의 研究』(乙酉文化社, 1985); 한국역사연구회, 「총론: 한국사인식의 방법과 과제」, 『한국사강의』(한울, 1989); 김기승, 「식민사학과 반식민사학」,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입문③ 근대·현대편』(풀빛, 1996).

2) 한영우는 이병도와 『진단학회』를 문화주의역사학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족주의역사학의 한 갈래로 분류하였다.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지식산업사, 2002), 287-292쪽.

3) 조동걸과 한영우는 자신들이 명명한 문화사학자들을 민족주의사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만열은 위의 역사학자 외에 남궁억을 포함시켜서 민족주의사학자로 분류하되 별도로 문화주의사학자로 부르지는 않았다.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나남출판, 1998), 238쪽; 한영우, 앞의 책, 259-270쪽, 287-298쪽; 이만열,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푸른역사, 2007), 597-599쪽.

역사가들의 평가는 전자로 몰린다. 그러나 누가 같은 시기 지식인과 대중에 대한 사상적·학문적 영향력이 강한지 선불리 말할 수 없다. 관(官)과 대학 주도의 식민주의사학이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한국사의 주체적 역사상을 어떻게 획득했을까.

이 글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각 역사학자들의 학문과 실천이 어디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식민지기에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역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학자가 서 있는 지역, 이용할 수 있는 매체와 제도적 기반 등에 따라 역사를 소비하는 지식인·대중과의 접점도 달라질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식민지기 조선 안팎의 문화지형을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의 역사 관련 단행본의 유통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당대에는 대학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도서관조차 부족해서 개인이 철 지난 신문이나 잡지를 찾아 읽기 힘들었던 까닭에 단행본으로 제한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자의 범주는 앞의 '문화사학자'의 예에서 보듯이 학자마다 다르다. 안재홍·문일평·정인보의 경우 신민족주의 사학자⁴⁾, 박은식과 신채호의 학맥을 계승하는 근대민족주의사학의 학맥⁵⁾, 후기 민족주의사학⁶⁾, 후기 문화사학⁷⁾ 등 비슷하지만 다르게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주의 사학자를 박은식과 신채호로 한정해서 분석한다.

4) 韓永愚, 『韓國民族主義歷史學』(一潮閣, 1994), 179-256쪽.

5)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지식산업사, 2011), 635-652쪽; 김기승, 앞의 글, 416-417쪽; 이만열, 앞의 책, 600-602쪽.

6) 표현만 다를 뿐 박은식과 신채호의 한국사 전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는 각주 5)와 다르지 않다.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글, 26-28쪽.

7) 최익환과 계봉우도 포함된다. 趙東杰, 앞의 책, 197-206쪽.

II. 박은식 역사학의 유통

1. 생애와 저술활동⁸⁾

박은식은 1859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났다. 호는 겸곡(謙谷)과 백암(白巖)이며, 1911년 이후 필명으로 무취생(無恥生), 태백광노(太白狂奴) 등을 사용하였다. 열 살 이후부터 서당 훈장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시와 문장을 배웠다. 1885년에는 향시에 합격하여 1888년부터 1894년까지 승인전 참봉, 동명왕릉 참봉을 지냈다.

1898년 상경하여 장지연(張志淵)과 유근(柳瑾) 등이 창간한 《황성신문(皇城新聞)》 주필을 맡았다. 이 무렵 위정척사론자에서 개화사상가로 변모하였다. 1904년 경학원 강사와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역임하면서 교육에 관한 『학규신론(學規新論)』을 간행하였다. 1905년 일본이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제하자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그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이어 복간된 《황성신문》으로 옮겨 강점 때까지 항일언론의 필봉을 휘날렸다.

1906년에는 관서지방 인사들과 함께 서우학회(西友學會)를 창설하고 기관지 『서우(西友)』의 주필을 맡았다. 1908년에는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를 통합하여 서북학회(西北學會)를 발족시키고 『서북학회 월보(西北學會月報)』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이 무렵 사범야학교 교장, 오성학교와 서북협성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다. 1909년 유교개혁을 주장한 「유교구신론(儒教舊新論)」을 발표하고, 1910년에 『왕양명실기(王陽明實記)』를 저술하여 양명학의 보급에 힘썼다. 또 한문교재인 『고등한문독본(高等漢文讀本)』을 편집하고 최남선(崔南善)의 광문회(光文會)에 참여하여 고전 간행에 노력하였다.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자 1911년 5월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의 윤세복(尹世復)의 집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윤세복은 나중에 대종교 3세 교주가 되었다. 박은식은 대종교에 입교하는 한편 윤세복이 경영하던 동창학교(東昌學校)의 교사를 지냈다.

8) 박은식의 생애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윤병식, 「박은식의 민족운동과 『全集』 편찬의 의의」, 『白山學報』 70(백산학회, 2004); 朴杰淳, 「해제: 白巖朴殷植全集 제6권 독립운동관련자료」, 『白巖朴殷植全集 제6권』(동방미디어, 2004).

이후 박은식은 여러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저술활동에 나섰다. 1912년에 신규식, 홍명희와 함께 동계사(同濟社)를 조직하였고, 상하이에서 교포 자제를 교육하는 박달학원을 세웠다. 1914년에 홍콩의 한인교포 잡지 『향강(香江)』의 편집을 잠시 맡았으며,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국시일보(國是日報)》의 주간으로 활동하였다. 1915년에 상하이 대동편역국(大同編譯局)에서 『한국통사(韓國痛史)』를 간행하였다. 같은 해에 이상설, 신규식과 함께 신한혁명단을 조직하고 감독을 맡았으며, 또 신규식과 함께 대동보국단(大同輔國團)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다.

1918년에 러시아에서 한인교포 잡지 『한족공보(韓族公報)』 발행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운동을 맞이한 뒤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을 조직하였다. 이후 상하이로 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독립신문』의 사장을 맡았다. 1920년에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192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를 지내고, 1925년에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25년 11월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이은 건국사를 쓰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표1에서 보듯이 박은식의 저서는 1901년에 수고본(手稿本)으로 발간된 『겸곡문고(謙谷文稿)』부터 1920년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이르기까지 20여 종에 이른다. 상하이(上海)의 『독립신문』은 박은식의 죽음을 알리면서 “學規新編, 王陽明實記, 檀祖事攷, 韓國痛史, 安重根傳, 東明聖王實記, 渤海太祖建國志, 夢拜金太祖, 大東古代史論, 泉蓋蘇文傳, 明臨答夫傳, 李儁傳, 李舜臣傳, 獨立運動血史, 渤海史, 金史 等 多數書籍을 著述하고 挽近에 大東民族史를 著述하다가 未畢하였다 했는데”,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술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저술이 망라되어 있다.

박은식의 저술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다시 빛을 보았다. 대구의 달성인쇄주식회사는 『한국통사』의 국문번역본을 출판하였고, 삼호각(三乎閣)¹⁰⁾과 삼중당(三中堂)¹¹⁾이 한문본을 발행하였다. 서울신문사는 한문

9) 「白岩先生略歷」, 《독립신문》, 1925년 11월 11일자(2면).

10) 「新刊紹介」, 《동아일보》, 1946년 9월 24일자(석간 4면). 편집 겸 발행자 金榮世, 인쇄인 李命珪, 인쇄소 조선인쇄주식회사, 1946년 6월 10일 인쇄, 6월 15일 발행. 3,000부 한정판. 170면.

11) 「新刊紹介」, 《자유신문》, 1946년 5월 4일자(2면); 「新刊紹介」, 《동아일보》, 1946년 5월 4일자(석간 2면).

본으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출간하였다. 이후 1975년과 2002년에 두 차례 전집이 발간되었다.¹²⁾

표1-박은식의 저작 목록

저서명	저자표시	연도	발행처	작성지역	비고
謙谷文稿	朴殷植	1901	手稿本	서울	132쪽
學規新論	朴殷植	1904	博文社	서울	36쪽
政治小説 瑞士建國誌	朴殷植 譯述	1907	大韓每日申報	서울	56쪽
王陽明先生實記	朴殷植	1910		서울	148쪽
高等漢文讀本	朴殷植(輯)	1910	新文館	서울	120쪽
夢拜金太祖	朴箕貞	1911. 11	프린트본	서간도	125쪽
泉蓋蘇文傳	朴箕貞	1911. 9	프린트본	서간도	44쪽
大東古代史論	朴箕貞	1911	프린트본	서간도	22쪽
東明聖王實記		1911. 10	프린트본	서간도	×
渤海太祖建國誌	朴箕貞	1911. 9	프린트본	서간도	66쪽
明臨答夫傳	朴箕貞	1911	프린트본	서간도	44쪽
檀祖事攷(檀祖) ¹³⁾	大倮教	1911?	프린트본	서간도?	73쪽
安重根	滄海老紡室	1912-4	大同編譯局	北京 上海	106쪽
韓國痛史	太白狂奴	1914-5	大同編譯局	上海	388쪽
李舜臣傳	白痴	1914-	獨立新聞社	上海	四民報, 光復 연재본
大東民族史		1914		上海	미완성본×
李儁傳		1918. 9		연해주	×
金史(한글역술)		1918. 9		연해주	×
渤海史(한글역술)		1918. 9		연해주	×
醒世小説 英雄淚	鷄林冷血生	1910년대		서간도?	200쪽
韓國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	1920	維新社	上海	386쪽

출처: 윤병석, 「박은식의 민족운동과 『소集』 편찬의 의의」, 『白山學報』 70(백산학회, 2004), 966쪽
비고: ×는 현재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저술

2. 상고사와 위인전 유통

대한제국기에 박은식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서우』 등의 주필을 지내면서 적지 않은 논설을 남겼다. 이 시기에는 교육개혁론,

1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朴殷植全書(전3권)』(단국대학교출판부, 1975); 백암박은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書(전6권)』(동방미디어, 2004).

13) '박은식전집'의 출간 이후 『檀祖事攷』의 저자를 대종교의 김교현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출되었다. 정옥재, 「『檀祖事攷』 저술에 관한 검토」, 『韓國史學史學報』 12(한국사학사학회, 2005).

자강론, 유교개혁론, 친일비판 등에 주력하였다. 역대 인물들의 전기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면서 국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역사 연구에 매진하지는 않았다.

박은식의 역사서 저술은 대종교와 만나던 1911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즈음에 박은식은 인근의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고대사 연구에 힘을 쏟았다. 『동명성왕실기(東明聖王實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 『천개소문전(泉蓋蘇文傳)』, 『명림답부전(明臨答夫傳)』, 『발해태조건국지(渤海太祖建國誌)』, 『대동고대사론(大東古代史論)』 등이 이때의 저술로서, 이 책들은 동창학교의 교재로도 사용되었다.¹⁴⁾

조선총독부는 해외에서 제작된 출판물이라도 조선으로 유입된 흔적이 있으면 발매반포금지령을 하였는데¹⁵⁾, 박은식의 1910년대 초기 저술들은 그 목록에서 발견할 수 없다. 프린트본이라서 제작 부수도 많지 않고, 보급지역도 시간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 저술들은 백암박은식전집간행위원회가 편찬 작업을 하던 2002년에야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은식은 안중근, 이순신, 이준 등 세 위인의 전기를 지었다. 이 중에서 『안중근전(安重根傳)』은 1914년에 상하이의 대동편역국에서 출판되었다. 그 이전에 같은 출판사에서 펴낸 『동서양위인총서(東西洋偉人叢書)』 속에 수록·간행되었던 것을 여러 인사의 「서(序)」, 「선록(選錄)」을 합편하여 다시 간행한 것이었다.¹⁶⁾ 『안중근전』은 미주에도 보급되었고¹⁷⁾ 1920년에 상하이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다음은 책의 재간을 알리는 《독립신문》의 소개 기사이다.

此書는 白巖 朴殷植 先生의 著述로 中國에서 發刊된 지 임의 數年이라 血流壯語는 筆墨에 淋漓하고 英魂毅魄은 天地에 磅礴하다 實로 近世에 英豪義俠을 研究하는 好材料요 東亞風雲의 關係를 詳示한 良史이다. 同時에 倍達民族을 爲하야 大韓國을

14) 윤병석, 앞의 논문(2004), 969쪽.

15) 예를 들어 1913년 3월 明洞耶蘇敎學校에서 발행한 『新纂 唱歌集』은 같은 해 10월에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朝鮮總督府, 『改訂十一版 敎科用圖書一覽』(1917. 11), 63쪽.

16) 윤병석, 「안중근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한국근현대사학회, 1988), 110쪽.

17) 보급자는 로스앤젤레스의 '이일'로서 「한국통사」도 취급하였다. 「안중근전」, 《신한민보》, 1916년 6월 8일자(4면).

爲하야 우리를 爲하야 神聖한 血로 祖國江山을 물디리고 正義의 彈으로 世界萬國을
 놀내인 亞洲第一義俠 安重根氏의 略歷이다 우리는 此書를 讀할 때에 尊嚴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本篇을 譯하기 前에 먼저 中國諸名士의 序文과 白巖先生의 緒言을
 述하노라¹⁸⁾

박은식의 저술 중에서도 “상하이에서 발간한 안중근전, 한국동사, 독립혈사 등이 가장 유명”하다는 《시대일보》 기사도 있었지만¹⁹⁾, 그것은 1920년 상하이에서 출판된 책이었다.

『안중근전』은 조선에서 두 차례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첫 번째는 1916년 2월로서 경무총감부의 요약을 보면, 제목 ‘안중근(安重根)’이라는 25매의 한문 소책자로서 장병린(章炳麟)의 ‘안군비(安君碑)’라는 제목의 서문을 시작으로 안중근의 초상과 전기를 모은 책이었다.²⁰⁾ 두 번째는 1917년 8월인데 표지는 『동서인물평전총서(東西人物評傳叢書)』로서 1916년 2월 25일에 압수처분을 받은 『안중근』과 내용이 똑같다고 하였다.²¹⁾ 이 외에 해외에서 발행된 신문 중에서도 안중근 관련 기사를 싣거나 안중근의 모습이 들어간 사진엽서는 발견되는 족족 압수되었다.²²⁾

1914년 《사민보(四民報)》에 연재되었던 ‘이순신전’은 1923년 2월에야 상하이에서 출판되었다. 박은식은 1915년 겨울 중국 상하이 선장(申江)의 객사에서 서문을 기초했다지만²³⁾ 이때 바로 출판되지는 않았던 듯하다.²⁴⁾ 《동아일보》는 “박은식씨의 신저술”로 제목을 뽑았고²⁵⁾, 《독립신문》

18) 「安重根傳」, 《독립신문》, 1920년 6월 19일자(1면).

19) 「朴殷植氏 長逝」, 《시대일보》 1925년 11월 5일자(2면).

20) 高圖秘 第112號(1916. 2. 25), 「出版物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21) 高圖秘 第13,658號(1916. 2. 25), 「出版物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22) 예를 들어 안중근 관련 사진을 실은 그림엽서(1914년 1월 17일 처분) 5매, 『안중근전』 광고를 실은 《신한민보》 제396호(1916년 6월 8일자), 이준과 안중근전을 기재한 『韶護堂集』(1917년 4월 4일 처분) 등을 압수하였다. 이상의 자료는 『朝鮮總督府通報』 第一卷과 第二卷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이 관본의 원본은 중국 저장성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現圭·權赫泰, 「朴殷植 『李舜臣傳』의 全文 발굴과 분석」, 『이순신연구논총』 1호(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3), 227쪽.

24) 조선총독부는 1914년 1월 15일자로 순한문 등사본 1책의 『李舜臣傳』을 발매반포금지 하고 압수하였다. 이 책의 저자, 발행자, 발행연월일은 모두 미상이다. 간도의 조선인들이 局子街 동쪽 약 1리에 위치한 小營子에 기독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였다. 인용된 제1장의 서문과 1923년판의 목차와 서문을 비교해 보았지만 내용이 달랐다. 高圖秘 第373號(1914. 10. 15), 「出版物處分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通報』 第一卷.

25) 「李舜臣傳 發行-박은식씨의 신저술」, 《동아일보》, 1923년 2월 26일자(3면).

도 광고에서 “朴殷植 先生이 多年 苦心積勞하여 編述한 我忠武公 李舜臣傳이 今焉 出刊되엿사오니”라고 하여 집필기간이 길었으며 지금 출간된다고 하였다. 『이순신전(李舜臣傳)』은 순한문으로 정가는 양삼각(洋三角)이었다. 발행인은 김희산(金希山)이었다.²⁶⁾

『안중근전』은 1989년에 중국 연지(延吉)에서 앞뒤가 낙질된 채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1992년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의 사회과학도서관과 도쿄에서 발견된 판본으로 앞뒤의 낙질을 보완하였다.²⁷⁾ 고전과 희귀본의 장서가로 유명했던 황의돈이 《동아일보》에 1956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연재했던 「안중근전」에도 박은식의 저술은 인용되지 않았다. 『이순신전』도 《사민보》나 『광복』에 수록된 부분은 일찍부터 알려졌지만, 단행본의 경우 2003년에야 중국 저장성(浙江省)도서관 소장본이 소개되었다. 이준의 전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3. 『한국통사(韓國痛史)』 유통

박은식의 저술 중 학계뿐 아니라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이다. 특히 전자는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촉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선인은 여타의 식민지의 야만반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지는 바가 없다. 고래로 史書가 많고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 관계를 缺하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꿈을 追想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서 일청 일로 간의 세력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의 나아갈 바를 설파하고 혹은 韓國痛史라고 일컫는 한 재외조선인의 저서 같은 것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²⁸⁾

이어진 문장에서 편성요지는 “舊史의 禁壓” 대신에 “공명적확한 史書”로서 대처하는 것이 淸경이고 그 효과가 현저하다면서, 이것이 바로 반도사 편찬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라 밝혔다. 곧 『한국통사』와 같은 책들

26) 「廣告」, 《독립신문》, 1923년 2월 7일자(1면).

27) 윤병식, 앞의 글(1988), 106쪽, 112-113쪽.

28) 朝鮮總督府 編,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1916), 6-9쪽.

때문에 조선인들이 ‘병합’의 진정한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복고 또는 독립을 꿈꾼다는 것이었다. 『한국통사』는 조선총독부에게 조선반도사 편찬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 셈이었다.²⁹⁾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는 『한국통사』에 두 차례나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내렸다. 첫 번째는 1915년 11월 5일 『세계통사(世界痛史)』를, 두 번째는 1916년 4월 4일 『각국근사(各國近史)』를 발매금지하였다. 경무총감부에 따르면 두 책의 내용은 똑같은데 단순히 표지만 다르게 하였다.³⁰⁾ 또 해외에서 조선으로 반입되는 『신한민보』나 『국민보』 등의 신문에 『한국통사』 관련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압수하였다.³¹⁾ 그만큼 조선총독부의 위기감이 컸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한국통사』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그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출간 후 조선인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 달리 말해 철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상당한 부수가 유입되어 비밀리에 읽히고 있음을 시사한다. 곧 1946년 상반기에 출판된 여러 종의 『한국통사』는 해방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다. 특히 번역 기간을 고려할 때 국문판의 출간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한국통사』가 조선 내에서 유통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사료로 확인된 경우는 하나뿐이다.

1917년 7월 초순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회원인 장덕수(張德秀), 홍진익(洪震義)은 상하이에서 『한국통사』 200부를 주문하였다. 그들은 유학생 중에서 유력한 동지들에게 우선 배부하고, 당시 각 학교를 졸업하거나 여름방학 때 조선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조선과 일본에 『한국통사』를 보급하였다.³²⁾ 상대적으로 검열이 심하지 않은 일본으로 우회하는 방식이었다.³³⁾ 물론 귀향 도중에

29) 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집(동북아역사재단, 2009), 359-362쪽.

30) 高圖秘 第151號(1916. 4. 4), 「出版物差押處分ノ件」,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31) 高圖秘發 第154號(1916. 4. 12), 「新聞紙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高圖秘收 第225號(1917. 6. 29), 「新聞紙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高圖秘 第14,296號(1917. 8. 15), 「新聞紙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32) 『大正七年五月三十一日調 極秘 朝鮮人概況 第二』(1918), 57쪽.

33)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는 신문과 출판물의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일자별로 정리한 『朝鮮總督府通報』를 內務次官, 外務次官, 內閣書記官長, 警視總監, 內務省 警保局長 등에 발송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검열기준을 본국정부에서도 참조·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장덕수 등의 『한국통사』 보급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개인 휴대품을 검사하면서 압수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200부라는 규모를 볼 때 적지 않은 수의 책이 반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으로 볼 때 『한국통사』가 가장 널리 보급된 곳은 미주지역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신한민보》는 상하이에서 발간된 지 두 달 만에 출판소식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 볼 것을 권하였다.

상하이에 있는 지사들은 근일 한국통사라 하는 사기를 출판하여 발행하였는디 그 책은 한국의 디리의 대략과 력사의 대기를 천면 二十편에 기록하고 그여 三백여편은 한국 최근 五十年사를 자세히 기록하였스며 또는 우리민족이 가히 알만한 사진을 만히 두었스니 이 책은 세상에 처음난 요긴한 책인 중에 우리 한인에게는 더욱 긴요하니 우리 동포는 각각 한권씩 구함이 맛당하며 또한 이 책은 순한문으로 더술하였스니 중국사람과 한문을 아는 외국인들도 만이 구랍할 줄 믿노라³⁴⁾

이어 9월 2일부터 《신한민보》는 한문을 해독하지 못하는 독자를 위하여 ‘한국의 원통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대위의 번역본을 연재하였다.³⁵⁾ 번역은 12월 9일자에서 제7회까지 이어지다가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후부터는 필요한 문제만 가려서 실는 것으로 바뀌었다.³⁶⁾

《신한민보》는 책의 보급에도 적극적이었다. 최초에 상하이에서 각 단체에 보내온 책이 몇 권뿐이어서 다시 상하이에 연락하여 10권이 새로 도착했으니, 필요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라는 기사를 작성하였다.³⁷⁾ 동시에 『한국통사』를 위해 미주지역 동포들이 의연금 모집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11월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의연금을 내는 동포에게는 이름과 금액을 신문에 실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³⁸⁾ 마감 결과 의연금 총액은 36원 50전이였다.³⁹⁾

『한국통사』는 《국민보》를 통해 신문의 발행지인 하와이에서도 소개되

것을 보면,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듯하다.

34) 「한국통사 발행」, 《신한민보》, 1915년 8월 19일자(3면).

35) 「한국통사」, 《신한민보》, 1915년 9월 2일자(4면).

36) 「한국통사(七)」, 《신한민보》, 1915년 12월 9일자(4면); 번역된 부분은 제2편 제1장부터 제12장까지였다. 이대위는 발췌번역을 약속했지만 그의 바쁜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최기영, 『잊혀진 미주한인사회의 대들보 이대위』(역사공간, 2013), 96쪽.

37) 가격은 70전이었고, 순한문이라는 정보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통사 리도」, 《신한민보》, 1915년 11월 11일자(3면).

38) 「특고」, 《신한민보》, 1915년 11월 11일자(1면).

39) 「통사 연금감하장」, 《신한민보》, 1916년 4월 6일자(3면).

었다.⁴⁰⁾ 하와이에서는 1917년 6월 김병식의 번역으로 한글판이 출간되어 보다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⁴¹⁾ 이후 하와이에서는 순한문본보다 번역본이 널리 보급되었다. 《국민보》에는 1937년 1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원가 2원 30전의 국문판 『한국통사』를 50전에 할인판매한다는 광고가 연속으로 실리기도 하였다.⁴²⁾

간도에서는 1916년 5월에 발행된 신흥무관학교의 기관지 『신흥학우보』 제10호에서 「한국통사를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本書는 조국의 詳細史이며, “오인이 있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비참과 학대를 기술한” 책으로서 “조국동포의 통독을 권”하였다.⁴³⁾ 러시아의 치타(chita)에서도 김신부라는 사람이 『한국통사』를 번역하여 판매하였다.⁴⁴⁾

4.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유통

박은식은 1919년에 상하이로 가면서 독립운동사 저술 계획을 주위에 널리 알렸다.⁴⁵⁾ 그리고 이듬해인 1920년 12월에 상하이 유신사(維新社)에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출간하였다. 유신사는 임시정부 계열의 출판사로서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이유필(李裕弼), 김홍서(金弘叙) 등이 경영하였다. 한문으로 간행한 이유는 한국인 외에도 중국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이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⁶⁾ 이 책은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간행한 『한일관계사료집』 4권을 근거로 하였다.⁴⁷⁾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출간되자마자 독립운동이 활발한 국외에서

40) 高圖秘 第號(1917. 3. 14), 「新聞紙押收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41) 黃元九, 「1917년판 번역본 『한국통사』」, 『東方學志』 23·24합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42) 「한국통사 사시오」, 《국민보》, 1937년 1월 13일자(2면).

43) 高圖秘 第227號(1916. 6. 20), 「出版物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44) 「한국통사를 아문으로 번역」, 《신한민보》, 1917년 9월 27일자(3면).

45) “先生은 人에게 語하야 曰 余의 今次 上海에 來함은 獨立運動史의 編纂을 目的함이니 亡國遺民으로 天涯에 流離한 지 十餘星霜에 獨立運動史를 쓰게 됨은 實로 天이 幸하심이라 死하야도 恨함이 無하리로다. 又聞컨대 該獨立運動史는 甲申之變에서 筆을 起할 지오 原本은 純漢文으로 되리라. 將次 大書를 茂할지나 爲先 二百頁 假量의 略史를 ○成하리라.” 「朴殷植先生과 獨立運動史」, 《독립신문》, 1919년 10월 14일자(3면).

46) 慎鋪廈, 「해제: 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韓國痛史·韓國獨立運動之血史」, 『白巖朴殷植全集 제1권』(동방미디어, 2002), 57쪽.

47) 尹炳奭, 「解説」, 『韓國獨立運動史 資料4 臨政篇IV』(國史編纂委員會, 1974), 458쪽.

널리 배포되었다. 우선 1921년 7월 현재 책이 출간된 상하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배일선전’을 위해 금과옥조처럼 사용하고 있으며⁴⁸⁾, 홍콩에서도 독립운동 유력자들이 소지하고 있다는 홍콩 주재 일본총영사의 보고가 있었다.⁴⁹⁾ 1921년 8월 베이징(北京)에서는 박은식의 아들 박시창(朴始昌)이 책을 판매하려고 수백 부를 휴대하였다는 첩보가 있었고⁵⁰⁾, 같은 달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영사관도 상하이에서 보내온 1부를 입수하였다.⁵¹⁾ 몇 부가 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미주지역에도 소개되었다.⁵²⁾

책을 지은 의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일반적인 서점 판매 외에 독립운동 조직을 통해서 유통되었다. 앞서 본 박시창의 경우나 대한민국임시정부원이라는 남계우(南桂祐)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강매’하고 있다는 중국특명전권공사의 보고가 이를 입증한다.⁵³⁾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조선 반입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비록 적발되었지만 아래 기사는 대량 반입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지난 25일 밤 ○○방면에서 上海僭稱政府員 수명이 부산에 와서 佐世保로부터 을 동지를 기다린다는 말을 탐지한 부산경찰서에서는 바로 그날밤 10시경부터 樋口北村 외 한 명의 조선인 형사를 부내 각처에 급파하여 체포에 착수했는데 드디어 本町 東明旅館에 잠복하였던 불명선인(22,3세) 3명이 오후 11시말 열차로 奉天방면에서 상하이로 가려는 것을 체포하고 國土名鑑, 獨立鑑, 假政府員 名簿, 寫眞, 不穩文書 등을 포함한 행낭을 압수하고 신병을 인치하여 목하 엄중히 취조중이다. 그 중 2명은 언론신문 동아일보의 기자로서 동시에 인천에서도 2명, 경성에서도 1명을 검거하였다.⁵⁴⁾

48) 亞三機密送 第70號(1921. 7. 14), 「韓國獨立運動宣傳書籍의 入手와 鮮人 金東雪 保護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上海假政府(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9) 「韓國獨立運動血史의 건(1921. 7. 5)」,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集 제6권 독립운동관련자료』, 477쪽.

50) 高警 第24265號의 2(1921. 8. 1), 「國外情報」,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上海假政府(4)』.

51) 機密 第53號(1921. 8. 21),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集 제6권 독립운동관련자료』(동방미디어, 2002), 481-495쪽.

52) 이 기사에서는 저자 박은식과 목차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한국지혈사 출세」, 《신한민보》, 1921년 3월 24일자(3면).

53) 公第311號(1919. 8. 23), 「韓國獨立運動之血史'送付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上海假政府(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4) 「認ひ込た假政府員三名 釜山陸署で逮捕」, 《朝鮮時報》, 1921년 3월 5일자(3면).

지나간 이십사일 오후 일곱시 경에 상하이(上海) 대련(大連) 사이를 왕리하는 괴선 데이연구환(第二研究丸)이 부산항 근처 바다를 항행하는 중 엿더한 영장사의 승객 한사람이 헝리 한 개를 휴대하고 부산에서 내린 것을 부산경찰서에서 탐지환바-되야 이십오일 아침해에 화전(和田) 사법계 주임 야촌(野村) 고등계 주임 이하 각형사가 출장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수색한 결과 전부가 과격한 문서로서 락 빅페이지식 되는 조선독립혈사(朝鮮獨立血史)라는 불온문서 칠십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 문서를 압수하고 인치취조하였는데 동인은 아즉 이십남짓한 청년으로 경성으로 드러와서 봉천을 지나 상하이로 가고저 함인듯하며 경성에서도 혐의자 수명을 인치취조하고 다시 인천에서 런루자를 테포하고 또 동인은 런루자가 부산 초량(草梁)에 잇슴을 자백하였슴으로 부산경찰서에서는 즉시 그 사람을 취조한 결과 전기 불온문서는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수입한 것인듯 하며 동사건의 관계자는 전부 제주도(濟州道) 출신의 사람들이라더라⁵⁵⁾

내용인즉 3월 5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원이 동지들과 접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산경찰서에서 잠복근무 결과 갓 20세를 넘은 한 청년을 체포하였다. 경찰은 그 청년에게서 여러 가지 물품을 압수하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눈에 띈다. 부산에서 발간된 《조선시보(朝鮮時報)》는 그 물품을 개략적으로 나열하였는데, 《동아일보》는 약 100페이지 되는 ‘조선 독립혈사’ 70권이라고 책이름을 밝혔다. 《매일신보》는 ‘수백 쪽의 조선 독립혈사’ 60부, 《경성일보》도 대한민국임시정부원 수명에게서 “수백 쪽의 조선 독립혈사라는 잡지” 60부를 압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⁵⁶⁾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보》는 다음날 기사에서 이 불온한 인쇄물들은 독립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추가 보도하였다.⁵⁷⁾

조선유림단 사건 때도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유력한 증거품이었다.

1927년 3월의 유림단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이 1925년 7월에 권총과 韓國○○運動血史를 가져온 목적을 묻자, 피고 김화식은 자금은 모집하는 한 방편으로 시위효과를 보자는 데 쓰자는 것이고, 더욱이 독립운동혈사는 거저 가져왔다고 말하였다.⁵⁸⁾

두 사례로 볼 때 체포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꽤 많은 숫자가 조선에 반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 이 책이 군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55) 「不穩文書 携帶한 者」, 《동아일보》, 1921년 3월 8일자(3면).

56) 「不逞靑年逮捕」, 《京城日報》, 1921년 3월 7일자(3면).

57) 「釜山署で押収した烙出の不穩文書」, 《朝鮮時報》, 1921년 3월 6일자(3면).

58) 「儒林團公判繼續」, 《동아일보》, 1927년 3월 18일자(2면).

주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 내에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가지고 있되 둘러볼 수 없고, 인용할 수도 없는 책이었다. 게다가 1927년 5월 3일자로 조선총독부의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⁵⁹⁾ 해방이 되어서야 비로소 책장에 꽂힐 수 있었다.

Ⅲ. 신채호 역사학의 유통

1. 생애와 저술활동⁶⁰⁾

신채호는 1880년 충청남도 대덕에서 태어났다. 조부 신성우(申星雨)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여 13세 때 사서삼경을 독파하였다. 18세 때 개화파 신기선(申箕善)의 집에서 친구서적을 섭렵하고, 그다음 해부터 3년간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이 무렵 개화사상을 섭취하고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된 직후에 장지연의 초청으로 《황성신문》의 논설기자가 되었다. 을사늑약을 비판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으로 《황성신문》이 정간되자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옮겨 박은식과 함께 항일언론의 필봉을 휘둘렀다. 이 무렵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讀史新論)」을 연재하여 새로운 역사상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또 양계초의 저술을 번역한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을 비롯하여 「을지문덕」,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등을 《대한매일신보》에 국한문 또는 국문으로 실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하였던 신채호는 1910년 4월에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 《대양보(大洋報)》와 《권업신문(勸業新聞)》의 주필로 일제의 침략을 폭로하면서 독립정신을 일깨웠다. 1913년부터 상하이와 서간도에서 1년간 체류하

59) 여기서 행정처분은 '발매반포금지' 처분이다. 『朝鮮文·支那文 刊行物行政處分索引』(발행연도 불명), 10쪽.

60) 신채호의 생애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신용하, 「신채호(申采浩)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사상』 10호(사회과학원, 1991); 이만열, 「단체 신채호의 민족운동과 역사연구」, 『충청문화연구』 5호(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0).

였다. 서간도에 있을 때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답사하고 동창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한편으로 조선사를 집필하였다.

1915년에 베이징으로 옮겨서 《중화보(中華報)》와 《북경일보(北京日報)》 등에 논설을 집필하였고, 1919년 2월에는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서 이승만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반대 활동을 벌이다가 1919년 10월에 《신대한(新大韓)》을 창간하여 임시정부의 외교론을 비판하였다. 1920년 4월 임시정부의 압력으로 《신대한》의 발행이 중지되자 1921년 1월부터 베이징에서 순한문으로 된 월간 『천고(天鼓)』를 창간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활발한 저술활동과 함께 신채호는 1920년 9월 만주 독립군 단체들의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통일촉성회(軍事統一促成會) 발기에 참여하고, 1921년 4월에는 군사통일주비회와 통일촉진회(統一促進會)를 발기하였다. 이때 신채호는 「통일촉진회 발기취지서」를 작성하여 각지에 돌렸다. 이어 1922년 12월 신채호는 김원봉(金元鳳)의 요청을 받고 의열단의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였다.

신채호는 1924년부터 한국사 연구에 매진하였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문장으로 유명한 ‘조선상고사’의 총론을 이때 썼다. 이 무렵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다수의 역사 논문을 발표하였다.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글을 중심으로 1929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조선사연구초(朝鮮史研究草)』가 출판되었다.

정력적으로 역사 연구를 하면서 신채호는 아나키즘운동으로 나아갔다. 1926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에 가입하였고, 1927년 9월 중국 톈진(天津)에서 6개국 대표들이 모여 결성한 무정부주의동방연맹(無政府主義東方聯盟)에 조선 대표로 참가하였다. 1928년 4월에는 스스로 주동하여 무정부주의동방연맹 북경회의를 조직·개최하고,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였다. 신채호는 이 회의의 결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대만 기륭(基隆)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바로 중국 다롄(大連)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1930년 5월 9일의 공판에서 10년 형을 받았다. 이후 류순(旅順) 감옥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신채호는 옥중에서 가야사와 조선당쟁사 등⁶¹⁾ 역사 연구에 큰 애착을 보였지만 1936년 2월 21일

61) ‘大伽倻國遷國考’와 ‘鄭仁弘公略傳’을 腹稿 중이었다고 한다. 「丹齋申采浩滄長逝」, 《조선일보》, 1936년 2월 23일자(2면).

표2-신채호의 저작 목록

저서명	저자표시	발행연월	발행처	출판지	비고
伊太利建國三傑傳	申采浩 譯述	1907. 10	廣學書舖	한성	번역
乙支文德	申采浩	1908. 5	廣學書舖	한성	국한문판
을지문덕	신채호	1908. 7	광학서포	한성	국문판
讀史新論 독스신론	一片丹生	1911. 6	신한서관	호놀룰루	국문판
大東歷史		1914 추정	필사본		국한문판
朝鮮史研究草	丹齋 申采浩	1929. 6	朝鮮圖書(株)	京城	국한문판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신채호가 쓴 글은 많았지만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책은 『조선사연구초』 하나에 불과하였다. 해방이 되자 식민주의사관을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사의 정립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신채호의 저술이 다시 출간되었다. 우선 1946년에 『조선사연구초』가 연학사(研學社)에서 나왔다. 또 같은 해에 김송규가 발행인인 광한서림(廣韓書林)에서 『조선사론 제일집(朝鮮史論 第一輯)』을 발행하였다. ‘단재 신채호선생 유고’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조선일보》에 연재된 신채호의 「조선사」 중에서 제1편 총론만을 따로 떼어서 단행본으로 묶었다. 이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10월에 안재홍의 서문을 단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가 종로서원에서 간행되었다. 《조선일보》에 연재된 「조선사」가 백제부흥운동에서 끝났기 때문에 통사인 ‘조선사’보다 ‘조선상고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까닭이었다.⁶²⁾ 이후 세 차례의 전집 편찬이 있었다.⁶³⁾

2. 『조선사연구초(朝鮮史研究草)』의 유통

한말에 신채호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필봉을 날리면서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고, 그중의 일부는 출간되었다. 그런데 1907년과 1908년에 발간된 『乙支文德』, 『을지문덕』, 『이태리건국삼걸전』 등 세

62) 이만열, 「해제: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 역사 朝鮮上古史」,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 역사 朝鮮上古史』(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8-9쪽.

63) 丹齋申采浩全集編纂委員會 編, 『丹齋申采浩全集(전3권)』(乙酉文化社, 1972);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丹齋申采浩全集刊行委員會 編,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전4권)』(螢雪出版社, 1977);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신채호전집(전9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책은 강점 직후인 1910년 11월 19일 다른 48종의 책과 함께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⁶⁴⁾ 이로써 일제강점기에 독자들이 신채호의 한말 저작을 읽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서점을 통해 신채호의 저작을 읽을 기회가 사라지자 다시 옛날처럼 필사본이 등장하였다.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신채호가 1907년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동역사(大東歷史)』의 필사본이 그것이다. 한결 김윤경이 마산 창신학교에 재직하던 1914년 여름에 이 책을 구입하였다.⁶⁵⁾ 『대동역사』는 검열과 압수를 우회하여 독자를 만났지만 서점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독자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수는 이 책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신채호는 1910년 망명길에 오른 뒤 《대양보》, 《권업신문》, 《신대한》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역시 많은 사실과 기사를 작성하였다. 신채호의 글은 대개 논설로서 어느 글이 신채호의 것인지 알기 힘들다는 점 외에 일일이 스크랩하지 않으면 두고 보기 힘들다는 신문의 약점을 고스란히 간직하였다. 그런 가운데 《대양보》는 1911년 7월(제1권 제3호)부터 9월(제1권 제13호)까지 한 호도 빠지지 않고 압수되었다. 주간인 《권업신문》도 창간 무렵인 1912년 5월(제3호)부터 1914년 8월(126호)까지 조선에 들어오는 족족 거의 압수되었다.⁶⁶⁾

신채호는 1921년 베이징에서 잡지 『천고』를 발행하였다. 현재 3호까지 발견되었다. 대부분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보도와 논설이며, 각 호마다 한 편씩의 고대사 논문이 실려 있다. 한족(韓族)과 한족(漢族)의 단결을 부르짖는 등 중국인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발행하였다.⁶⁷⁾ 잡지의 성격상 필명으로 쓰인 게 많아서 필자 추정에 논란이 있지만⁶⁸⁾ 신채호의 글이 많이 실렸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조선총독부는

64) 『朝鮮總督府官報』(1910. 11. 19). 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물 통제에 대해서는 이중연, 『책의 운명』(혜안, 2001), 426~433쪽; 장신,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 사건'의 진상」, 『역사와현실』 80호(한국역사연구회, 2011) 참조.

65) 김종복·박준형, 『『大東歷史(古代史)』를 통해 본 신채호의 초기 역사학』, 『東方學志』 162호(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66) 압수에서 빠진 《권업신문》은 제4호와 제5호이며, 제16호부터 제88호까지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警務月報』 26호(1912. 6), 470쪽; 『警務月報』 31호(1912. 8), 563쪽; 『警務月報』 32호(1912. 9), 581쪽, 589~590쪽; 이규수 편, 『조선총독부 언론통제자료(1)』(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4), 289~514쪽.

67) 최광식, 『단재 신채호의 天鼓』(아연출판부, 2004), 24쪽.

68) 김주현, 「신채호의 자료 발굴 및 원전 확정 연구-『天鼓』를 중심으로」, 『語文學』 93호

『천고』를 “독립사상 선전잡지”로 규정했는데, 중국 각지뿐 아니라 조선 내에도 배송된 것으로 파악하였다.⁶⁹⁾ 역시 중국에서는 『천고』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한문인 데다가 ‘불법’ 출판물이어서 독자 확대에는 한계를 지녔다.

게다가 “수를 가지고 舊를 較할 때 참아볼 수 없는 것같이 貶看”한다는 정정보의 말처럼, 신채호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완벽한 글만 발표하려고 하였다. 조그마한 오류도 참지 못해 다 써놓은 원고를 찢어서 불태우기 일췌였다고 한다.⁷⁰⁾ 그랬던 신채호가 조선의 대중들과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만나게 된 때는, 그의 역사논문들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연재되면서부터였다. 특히 《동아일보》 연재는 신채호 가족의 생계를 염려한 홍명희 등 지기들의 권고와 배려 덕분이었다.

《동아일보》에 발표된 원고들은 대부분 『조선상고사』의 집필과정에서 정리된 것으로서, 1929년 6월에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조선사연구초』에 수록·발행되었다.⁷¹⁾ 이 책의 발간으로 신채호는 “조선에서도 우수한 역사가의 한 사람으로 그 방면의 -권위”라는 평을 얻었다.⁷²⁾ 한 신문에 연재된 「단재옥중회견기(丹齋獄中會見記)」의 큰 제목은 ‘조선의 역사대가였다.’⁷³⁾ 지금도 『조선사연구초』는 “1920년대 단재사학의 성숙기를 대표하는 저술이자 당시까지 민족주의역사학의 연구 수준과 성과를 대표하는 저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⁷⁴⁾

국내 신문에 발표된 신채호의 글들은 논쟁을 유발하였다. 안확은 신채호의 이두 해석을 소개하고 비판하였고⁷⁵⁾, 홍기문은 언어와 역사의 관계를 살피면서 신채호의 고대사 해석을 반박하였다.⁷⁶⁾ 인용도 활발해

(2006) 참조.

69) 김주현, 「신채호가 북경에서 발간한 잡지 《천고》 3호」, 『한국근현대사연구』 61집(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213쪽.

70) 鄭寅普, 「丹齋와 史學(下)」, 《동아일보》, 1936년 2월 28일자(4면).

71) 박걸순,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의 의의와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4-25쪽.

72) 「신채호 永眠」, 《매일신보》, 1936년 2월 19일자(5면).

73) 申榮雨, 「朝鮮의 歷史大家-丹齋獄中會見記(1-7)」, 《조선일보》, 1931년 12월 19(석간 5면)-29일자(석간 4면).

74) 박걸순, 「해제: 단재신채호전집 제2권 역사 朝鮮史研究草」, 『단재신채호전집 제2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29쪽.

75) 安自山, 「申采浩氏의 吏讀解釋(一一三)」, 《中外日報》, 1928년 3월 6(3면)-8일자(3면).

76) 洪起文, 「歷史와 言語의 關係(四) 申丹齋의 語源 考證을 檢討함」, 《조선일보》, 1935년 2월 5일자(석간 4면).

표3-신문에 게재된 신채호의 역사 원고

기사제목	게재지	게재일	비고
吏讀文名詞解釋	동아일보	1924. 10. 20-11. 3	朝鮮史研究草 수록
古史上 東西兩字 בק구인 實證	동아일보	1925. 1. 3	
三國志 東夷列傳의 校正	동아일보	1925. 1. 25-1. 26	
平壤泔水考	동아일보	1925. 1. 30-2. 14	
朝鮮史	조선일보	1931. 6. 10-10. 14	朝鮮上古史로 출판
朝鮮上古文化史	조선일보	1931. 10. 15-12. 3	
		1932. 5. 27-5. 31	

저서 김윤경은 이두 연구에서⁷⁷⁾, 정인보는 조선사를 서술하면서⁷⁸⁾ 신채호를 인용하였다. 신동엽은 자신의 원고를 쓰는 데 최남선과 이능화 외에 신채호의 설을 참고하였음을 밝혔다.⁷⁹⁾

『조선사연구초』가 출간되었을 때 문일평은 단재의 글이 조선사회에 가져온 파문을 회상하고, 단재와 그의 저작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곧 문일평은 《동아일보》에 실린 단재의 글은 “斯界識者들 사이에多大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조선사연구초』는 그 문제의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것임을 밝혔다. 이어 단재를 “광무융희 때에 조선사원론을 비롯해 을지문덕전, 최도통전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학계의 선배”로 소개하였다. 단재를 신라 이래 소조선(小朝鮮)의 역사에 불만을 품고 대조선(大朝鮮)의 정신을 확립하려고 노력한 혁명적 기백을 가진 애국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세간의 평을 전하였다.⁸⁰⁾

문일평은 『조선사연구초』에 수록된 여섯 편의 사론(史論)을 조선사를 연구하는 이로서 누구나 한번쯤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吏讀文名詞解釋 가튼 것은 朝鮮古史를 開拓하는데 있어서의 한 秘論이 될 것이며 三國志東夷列傳校正 가튼 것은 歷史著述 하는 이의 가장 必要한 史料選擇에 關하여 批判的 態度를 보여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朝鮮歷史上一千年來第一大事件 가튼 것은 高麗思想史의 二大 主流를 지은 自尊派 對 漢化派의 消長에 對하여 妙淸의 事變이 크게 關係잇는 것을 道○하였다. 其他 前後三韓考와 三國史記中東西兩字考

77) 金允經, 「朝鮮心과 朝鮮色(其四) 吏讀로부터 한글까지(一)」, 《동아일보》, 1934년 11월 22일자(3면).

78) 鄭寅普, 「五千年間 朝鮮의 열(26) 古朝鮮의 大幹(八)」, 《동아일보》, 1935년 2월 6일자(1면); 鄭寅普, 「丹齋와 史學(下)」, 《동아일보》, 1936년 2월 28일자(4면).

79) 辛東燁, 「上古朝鮮自由愛婚俗考-아울러 그 史話(十一)」, 《동아일보》, 1932년 2월 6일자(4면).

80) 文一平, 「讀史閑評(九)-朝鮮史研究草를 보고」, 《조선일보》, 1929년 10월 15일자(6면).

證과 쏘는 平壤淚水考 가튼 것은 丹齋一流의 ○見이 잇는 대신에 獨斷이 업는 것이 아니로되 그의 獨斷이야말로 더욱 讀者의 ○察을 要하는 것이 아니냐⁸¹⁾ (○는 판독 불능-인용자)

문일평은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이에게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였다. 1929년에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사학과를 졸업한 이선근도 딱히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선사연구초』를 전문가 수준의 책으로 생각한 듯하다. 그는 조선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中等朝鮮歷史)』, 권덕규의 『조선유기(朝鮮留記)』, 최남선의 『조선역사(朝鮮歷史)』 등으로 일반사에 대한 초보 관념을 얻고, 그다음에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의 『조선통사(朝鮮通史)』나 조선사학회 편 의 일반사를 참고로 일독할 것을 권했다.⁸²⁾

학자들의 의견과 다르게 『조선사연구초』는 조선사의 입문서로서 신문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우리말로 쓴 조선 역사책을 알고 싶다는 독자 질문에 “신채호씨가 쓴 조선사연구초를 읽으시오”⁸³⁾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이 있었다. 조선사를 좀 알아야 하니 “日文, 朝鮮文을 勿論하고 알기 쉽고 조흔 冊”을 가르쳐달리는 질문에 여러 책을 소개하면서 단재의 저작을 포함시켰다.⁸⁴⁾ 일본인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조선어와 반만년 조선역사와 조선어문법을 獨習하려는 데 필요한 참고서”를 묻는 질문에도 조선인 저작 중에서 비교적 자세한 조선사를 볼 수 없지만 “간단한 책자”로서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가 이름을 올렸다.⁸⁵⁾ 사학자 이기백은 중학생 때 아버지의⁸⁶⁾ 장서(藏書)인 『조선사연구초』를 열심히 읽었다고 회고하였다.⁸⁷⁾

논쟁을 유발하고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추천을 받았지만, 기자들의

81) 文一平, 「讀史閑評(十)-朝鮮史研究草를 보고」, 《조선일보》, 1929년 10월 16일자(6면).

82) 李瑄根, 「朝鮮歷史를 研究코져 하는 이에게」, 『新東亞』 6권 9호(1936. 9), 150-151쪽.

83) 「讀書顧問」, 《동아일보》, 1929년 12월 26일자(4면).

84) 함께 소개된 책은 “朝鮮最近世史(이선근), 朝鮮歷史(최남선), 朝鮮史(조선사학회), 李朝五百年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半萬年朝鮮歷史, 兒時朝鮮, 東史年表, 五千年朝鮮歷史, 新編朝鮮歷史, 朝鮮歷史研究草, 普通朝鮮歷史, 朝鮮歷史(이창환), 通俗朝鮮四千年秘史” 등이다. 「應接室」, 《동아일보》, 1936년 4월 20일자(4면).

85) 함께 추천된 책으로는 “권덕규가 쓴 朝鮮留記, 회동서관에서 나온 李鍾植의 東方歷史가 있고, 일본인이 쓴 것으로 朝鮮史學會의 朝鮮史大要”가 있었다. 「讀書顧問」, 《동아일보》, 1930년 1월 24일자(6면).

86) 이기백의 부친은 이찬갑이다. 백승중, 『그 나라의 역사와 말』(공리, 2002).

87) 李基白, 「나의 삶 나의 생각」, 《京鄉新聞》, 1994년 7월 15일자(13면).

답변처럼 『조선사연구초』가 중학생 수준에서 알기 쉬운 간단한 책자였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음은 사학자 김용덕의 회고인데, 소문을 듣고 책을 접한 독자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내가 단재사학(丹齋史學)에 접한 것은 해방 전 학생 때의 일이었다. 한장본(韓裝本)으로 된 <조선사연구초(朝鮮史研究草)>를 사서 아마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만을 읽은 것 같다. 제목이나 내용이나 범상하지 않은 것이 인상에 남았을 뿐, 다른 논문은 이해하기에 힘이 들어 읽지 않았었다.⁸⁸⁾

IV. 맺음말

박은식의 역사서 저술은 1911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서간도에 머무를 때는 주로 프린트본의 상고사를 집필하였다. 이 책들은 불과 10년 전에야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작 부수도 많지 않고, 보급지역도 그렇게 넓지 않았다. 위인전 중에서는 『안중근전』만이 비교적 널리 보급되었다.

박은식의 부고기사를 보면, 약력에 소개된 저술 목록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각 저술들의 유통 상황을 대변해준다. 『한국통사』는 출판지 상하이를 비롯하여 조선, 간도, 러시아, 미주지역 등 조선인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보급되었다. 특히 이 책은 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운동을 벌였다. 미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부분 번역, 하와이에서는 완역을 하여 독자층을 꾸준히 확대시켰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독립운동단체가 직접 선전에 나서고, 군자금 모집의 도구로 사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시대일보》에 유명하다고 언급되고, 《독립신문》도 중외의 인기를 증명해준⁸⁹⁾ 세 책의 공통점은 어떤 방법이든 조선에 반입하려다가 제지당한

88) 金龍德, 「丹齋를 추모하며」, 『韓國史隨錄』(乙酉文化社, 1984), 375쪽.

89) “吾民族 事業이 一個生命體로서 存續하는 幾多事件을 統括하여 運動史를 編製함은 既往을 考察하여 將來를 籌劃하며 先烈의 偉勳을 表彰하여 後人에 義奮을 喚起함에 絶對必要한 事이라 況此로써 世界에 廣佈하여 人類의 向義心을 招徠함이어니오 前二三年間에 刊行된 韓國獨立運動之血史 韓國痛史等 二三冊子가 中外各方에 歡迎을 博得한은 足히 右事實을 證함에 有餘하도다” 「史料蒐輯通告文」, 《독립신문》, 1923년 11월 10일자(2면).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으로 경찰에 노출되지 않고 독자의 손에 들어간 책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 책들은 모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 장기간의 유통이나 장거리의 이동도 가능한 인쇄물로서 국제교통의 중심지인 상하이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곧 합법적으로 서점에서 유통되지 않고 손에서 손으로 제한적인 독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내에는 순한문본밖에 없었으므로 한문에 능숙한 이가 아니면 읽을 수 없었다. 보통학교가 최고 학력인 사람이 늘어날수록 박은식과 대중의 접점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채호도 한말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문 논설을 쓰고, 국외로 망명해서도 여러 신문에 글을 실었다. 신문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곁에 두고 참고하기 힘들 뿐 아니라 무기명 논설의 경우 필자를 확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한말에 집필한 저술들은 독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만, 일본의 한국 강점으로 모두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가 직접 관계한 신문이나 잡지 등도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채호는 박은식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신채호의 글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조선의 주요 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연재물의 일부는 『조선사연구초』로 묶여 조선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조선사연구초』는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조선사를 알려는 이들에게 입문서나 연구서로 추천되었다. 그의 저서는 지식인과 대중들이 그의 사상과 역사상을 이해하고 확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근대 사학사 또는 사상사에서 박은식과 신채호의 역사학의 위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공간을 설정하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박은식과 신채호의 글은 식민지 조선 바깥(해외), 강점 이전과 해방 이후에 널리 독자를 만났다. 정작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내에서는 아예 단절되거나 제한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독자에게 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조선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공백을 메운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역사학과 역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학사나 사상사적 위상에 관계없이 관학아카데미즘에 대응하여 당대 조선인의

역사 지식의 대중화를 책임졌던 일군의 역사학자(또는 저술가)들과 그들의 저서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⁹⁰⁾ 그 평가는 저술 자체를 넘어서서 출판과 유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식민지를 살았던 조선인의 조선사상(朝鮮史象)과 역사인식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0) 박종린, 「'朝鮮史'의 서술과 역사지식 대중화-黃義敦의 『中等朝鮮歷史』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호(역사문제연구소, 2014).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金龍德, 『韓國史隨錄』. 乙酉文化社, 1984.
-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지식산업사, 2011.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朴殷植全書(전3권)』. 단국대학교출판부, 1975.
- 백승중, 『그 나라의 역사와 말』. 궁리, 2002.
- 백암박은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集(전6권)』. 동방미디어, 2004.
- 이규수 편, 『조선총독부 언론통제자료(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4.
- 이만열,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 이중연, 『책의 운명』. 해안, 2001.
-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 朝鮮總督府, 『改訂十一版 教科用圖書一覽』. 1917. 11.
- 최기영, 『잊혀진 미주한인사회의 대들보 이대위』. 역사공간, 2013.
- 최광식, 『단재 신채호의 天鼓』. 아연출판부, 2004.
- 韓永愚, 『韓國民族主義歷史學』. 一潮閣, 1994.
- _____,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2.

2. 논문

- 姜萬吉, 「日帝時代の 反植民史學論」. 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1985.
- 김기승, 「식민사학과 반식민사학」.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입문③ 근대·현대편』, 풀빛, 1996.
- 金龍德, 「丹齋를 추모하며」. 『韓國史隨錄』, 乙酉文化社, 1984.
-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역사학회, 1966.
- 김종복·박준형, 「『大東歷史(古代史)』를 통해 본 신채호의 초기 역사학」. 『東方學志』 16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김주현, 「신채호의 자료 발굴 및 원전 확정 연구-『天鼓』를 중심으로」. 『語文學』 93, 2006.
- _____, 「신채호가 북경에서 발간한 잡지 《천고》 3호」. 『한국근현대사연구』 6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 朴杰淳, 「해제: 白巖朴殷植全書 제6권 독립운동관련자료」. 『白巖朴殷植全書』 제6권, 동방미디어, 2004.
- _____, 「해제: 단재신채호전집 제2권 역사 朝鮮史研究草」. 『단재신채호전집』 제2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_____,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의 의의와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박종린, 「朝鮮史」의 서술과 역사지식 대중화-黃義敦의 『中等朝鮮歷史』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 朴現圭·權赫泰, 「朴殷植 『李舜臣傳』의 全文 발굴과 분석」. 『이순신연구논총』 1,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3.
- 신용하, 「신채호(申采浩)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사상』 10, 사회과학원, 1991.
- _____, 「해제: 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韓國痛史·韓國獨立運動之血史」. 『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동방미디어, 2002.
- 尹炳奭, 「解説」. 『韓國獨立運動史 資料4 臨政篇IV』, 國史編纂委員會, 1974.
- _____, 「안중근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국근현대사학회, 1988.
- _____, 「박은식의 민족운동과 『全集』 편찬의 의의」. 『白山學報』 70, 백산학회, 2004.
- 이만열, 「해제: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 역사 朝鮮上古史」.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 역사 朝鮮上古史』.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_____, 「단재 신채호의 민족운동과 역사연구」. 『충청문화연구』 5,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0.
- 李瑄根, 「朝鮮歷史를 研究코저 하는 이에게」. 『新東亞』 6권 9호, 1936. 9.
- 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 _____,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 사건'의 진상」. 『역사와현실』 80, 한국역사연구회, 2011.
- 정옥재, 『檀祖事攷』 저술에 관한 검토. 『韓國史學史學報』 12, 한국사학사학회, 2005.
- 한국역사연구회, 「총론: 한국사인식의 방법과 과제」. 『한국사강의』, 한울, 1989.
- 黃元九, 「1917년판 번역본 『한국통사』」. 『東方學志』 23·24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역사학과 그 영향력의 문제를 다루었다.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로 평가받는 박은식과 신채호의 역사 관련 단행본 유통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식민지기에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역사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학자가 서 있는 지역, 이용할 수 있는 매체와 제도적 기반 등에 따라 역사를 소비하는 지식인·대중과의 접점도 달라졌다. 박은식과 신채호는 식민지 조선의 바깥(해외), 1910년 이전과 1945년 이후에 널리 독자를 만났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검열 때문에 조선 내에서는 아예 단절되거나 제한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독자에게 전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공백을 메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사학사나 사상사적 위상은 높지 않다. 그들은 관학아카데미즘에 대응하여 당대 조선인의 역사 지식의 대중화를 책임졌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저술뿐 아니라 출판과 유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식민지기 조선 안팎의 문화지형을 새롭게 그릴 수 있다.

투고일 2016. 6. 21.

심사일 2016. 8. 12.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박은식(Park Eun-shik), 신채호(Shin Chae-ho), 검열(censorship), 황의돈(Hwang Eui-don)

Abstracts

Distribution of Nationalism History Stud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Jang, Shin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s and impact of history stud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This problem was approached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books on history by Park Eun-shik and Shin Chae-ho, who are evaluated as representative nationalism historians.

There were no studies on history that had influence on everyone going beyond time and space constraints because it was a colony. The contact point of intellectuals and the public who consumed history was also different depending on the area in which the historian stood and according to the available media and institutionalized basis. Park Eun-shik and Shin Chae-ho met widely with readers outside (overseas) of colonial Joseon before 1910 and after 1945. From 1910 to 1945, readers were cut off completely or could read just part of their ideas in Joseon. This was because of censorship.

There were people who filled in the void of nationalism historians in Joseon. Their historiography and ideas did not have high statu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academism, they were responsible for publicizing the historical knowledge of the Joseon people in that period. Evaluations on them had to focus not only on their books, but also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By doing so, the cultural geography both inside and outside of colonial Joseon can be newly drawn.